

SAMSUNG DAILY

삼성데일리

투자전략센터 | 2018. 11. 14

- Path Finder I 크리스에프앤씨(110790)
신규 의류 브랜드 성장이 기대되는 2019 년!
- 리서치센터 Top 10 Picks
- Model Q
- 글로벌 유니버스
 1. 범중화 시장
 2. 미국 시장
 3. 일본 시장
 4. 유럽 시장
 5. 베트남 시장
 6. ETF
- 수급 빅매치
- Market Indicators
- 증시캘린더



신뢰에 가치로 담하다
삼성증권





[Path Finder] 크리스에프앤씨(110790) 신규 의류 브랜드 성장이 기대되는 2019년!

권명준

myongchun.kwom@samsung.com
02 2020 7558

김종민

Jm56.kim@samsung.com
02 2020 7030

- 진입장벽이 낮아진 골프장
- 여성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웨어 시장 성장
- 신규브랜드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2019년

기업개요

크리스에프앤씨는 1998년에 설립된 골프웨어 전문업체이다. 자체브랜드 육성보다는 기존 유명 브랜드를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파리게이츠(PEARLY GATES), 핑(PING), 팬텀(FANTOM) 등 기존 브랜드에 2017년 기능성을 강화한 마스터바니(MASTER BUNNY), 2018년 하이엔드 골프웨어 세인트앤드류스(St.ANDREWS)를 추가하는 등 브랜드를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 마케팅(이정은6, 오지현 등), 스폰서십(KPLGA) 마케팅, 매스미디어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판매는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 직영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523개(백화점 95개, 아울렛 124개, 대리점 290개 등)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골프장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2조원으로 연평균 4.3%(2013~2017년) 성장 중이다. 2017년 기준 국내 골프 인구는 469만명으로 연평균 12%(2012~2017년) 성장 중이며, 필드이용인구 추이도 1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골프 인구들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소득(GDP) 증가와 대중적인 퍼블릭 골프장의 성장으로 골프 입문이 용이해졌다. 스크린 골프 시장 성장, 여성 골프인구 증가 등도 골프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2,650 원
시가총액	2,653 억원
Shares(float)	11,715,480 주(65.8%)
52 주 최저/최고	20,900 원/27,200 원
60 일-평균거래대금	6 억원

ONE-YEAR PERFORMANCE

	1M	6M	12M
크리스에프앤씨(%)	(4.2)	-	-
Kosdaq 지수 대비(%pts)	(8.3)	-	-

SUMMARY FINANCIAL DATA

	2014.12	2015.12	2016.12	2017.12
매출액(십억원)	142.0	164.1	204.3	281.1
영업이익(십억원)	13.6	20.9	30.5	46.3
순이익(십억원)	9.4	17.6	18.6	33.6
EPS(adj) (원)	1,349	1,181	2,202	2,381
ROE (%)	29.7	40.6	28.1	0.0
P/E (adj) (배)	-	-	-	-
P/B (배)	-	-	-	-
EV/EBITDA (배)	-	-	-	-
Dividend yield (%)	-	-	-	-

자료: WiseFn



여성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웨어 시장 성장

2015년 이후 여성 골프 인구 유입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5년 187만명에서 2017년 249만명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신규 골프인구를 비교해 보면 여성 골프 인구 유입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남성:여성이 57:44에서 2017년에는 49:51로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골프웨어 시장은 2008~2011년 성장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다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3조원(+14.7% YOY)을 돌파했으며, 2018년에는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2015년 이후 골프웨어가 빠른 성장 요인은 신규 유입되는 여성 골퍼들이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남성:여성의 골프웨어 매출 비중이 58:42인 반면, 2017년에는 34:66로 역전되었다. 여성 골프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동사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여성 골프 의류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신규 브랜드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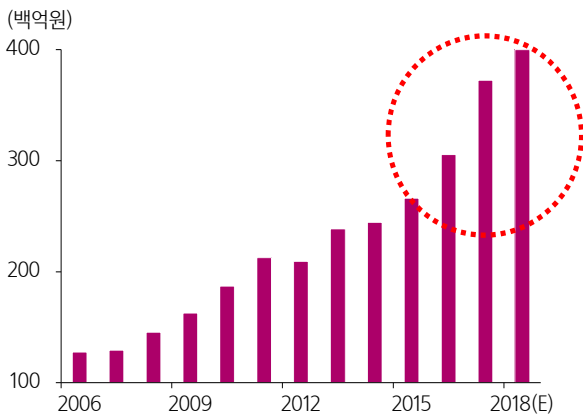
골프의류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동사는 신규 브랜드 들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마스터바니(MASTER BUNNY)는 2017 년에 런칭했으며, 2018 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장 확대를 시작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2021 년까지 매장을 65 개(2018 년 6 월말 기준 7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세이트앤드류스는 하이엔드 골프웨어이며, 2018 년에 국내 사업권을 획득했다. 현재 마켓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19 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을 전개, 2021 년에는 15 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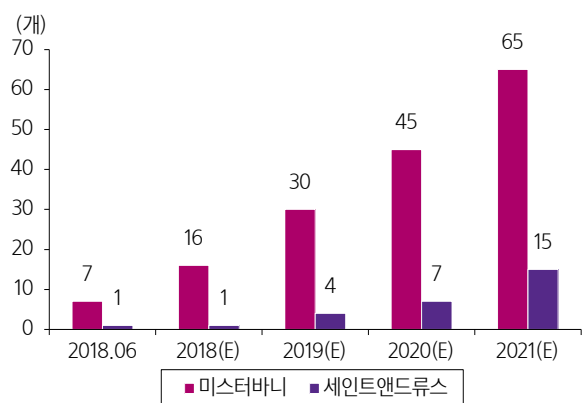
셋째, 동사는 지난 9 월 이탈리아 브랜드인 하이드로젠(HYDROGEN) 독점유통을 시작했다. 프리미엄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이며, 해골 시그니처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동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골프웨어에서 스포츠웨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19 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그림 1. 국내 골프웨어 시장 성장 추이



자료: 패션채널, 삼성증권

그림 2. 신규 브랜드 매장 확대 계획



자료: 크리스에프앤씨, 삼성증권

포괄손익계산서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매출액	121.1	142.0	164.1	204.3	281.1
매출원가	41.1	51.0	56.3	67.5	98.4
매출총이익	80.0	91.0	107.8	136.8	182.6
(매출총이익률, %)	66.1	64.1	65.7	67.0	65.0
판매 및 일반관리비	69.4	77.4	86.8	106.3	136.3
영업이익	10.6	13.6	20.9	30.5	46.3
(영업이익률, %)	8.8	9.6	12.8	14.9	16.5
영업외손익	3.8	0.3	(0.1)	(0.3)	0.6
금융수익	0.0	0.0	0.0	0.0	0.1
금융비용	1.9	2.2	1.7	2.1	1.0
지분법손익	0.7	0.1	2.3	(2.4)	0.0
감가상각비	4.7	4.3	3.6	3.4	4.3
세전이익	13.4	11.9	21.5	25.7	46.0
법인세	2.6	2.5	3.9	7.1	11.0
(법인세율, %)	19.3	20.8	18.1	27.5	23.9
계속사업이익	10.8	9.4	17.6	18.6	35.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2.0)
순이익	10.8	9.4	17.6	18.6	33.1
(순이익률, %)	8.9	6.7	10.7	9.1	11.8
지배주주순이익	10.8	9.4	17.6	18.6	33.6
비지배주주순이익	0.0	0.0	0.0	0.0	(0.5)
EBITDA	15.3	17.9	24.5	33.9	51.1
(EBITDA 이익률, %)	12.6	12.6	14.9	16.6	18.2
EPS (지배주주)	1,349	1,181	2,202	2,381	3,372
EPS (연결기준)	1,349	1,181	2,202	2,381	3,372
수정 EPS (원) *	1,349.1	1,180.8	2,201.6	2,238.9	3,372.2

자료: WiseFn

현금흐름표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4.9	5.7	17.6	(0.8)	30.8
당기순이익	10.8	9.4	17.6	18.6	33.1
현금유출입이없는 비용 및 수익	4.5	5.4	2.4	7.7	17.7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0	4.0	3.3	3.1	4.5
무형자산 상각비	0.7	0.3	0.3	0.3	0.3
기타	(0.2)	1.1	(1.1)	4.3	12.9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0.4)	(9.1)	(2.4)	(27.2)	(10.2)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	(13.6)	(6.4)	(3.6)	4.6	(47.7)
유형자산 증감	(7.3)	(1.0)	(2.0)	4.9	(5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감	(0.1)	(0.4)	0.0	0.1	(0.2)
기타	(6.2)	(5.0)	(1.7)	(0.4)	2.4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	8.3	1.2	(12.7)	(0.3)	14.9
차입금의 증가(감소)	8.9	1.9	(2.2)	6.7	18.9
자본금의 증가(감소)	0.0	0.0	0.0	0.0	0.0
배당금	(2.0)	(1.0)	(2.0)	0.0	0.0
기타	1.4	0.3	(8.5)	(7.0)	(4.0)
현금증감	(0.4)	0.6	1.3	4.2	(2.3)
기초현금	1.1	0.7	1.3	2.6	7.3
기말현금	0.7	1.3	2.6	6.8	4.9

자료: WiseFn

재무상태표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유동자산	55.3	57.9	67.3	116.1	130.0
현금 및 현금등가물	0.7	1.3	2.6	6.8	4.9
매출채권	10.2	11.6	13.7	16.5	24.5
재고자산	43.9	44.8	50.2	88.1	87.8
기타	0.5	0.3	0.8	4.8	12.8
비유동자산	51.9	53.3	54.5	37.2	81.0
투자자산	11.9	17.2	19.2	6.2	8.5
유형자산	35.5	32.4	31.0	25.5	65.9
무형자산	1.1	0.8	0.6	0.4	3.7
기타	3.4	2.9	3.7	5.0	3.0
자산총계	107.2	111.2	121.8	153.3	211.0
유동부채	61.6	63.9	62.5	69.3	84.5
매입채무	35.7	30.5	35.5	33.5	26.3
단기차입금	23.5	31.4	21.3	26.4	38.9
기타 유동부채	2.4	2.0	5.8	9.4	19.3
비유동부채	17.5	11.7	8.2	2.6	4.0
사채 및 장기차입금	17.2	11.3	7.9	2.2	2.0
기타 비유동부채	0.4	0.3	0.2	0.4	2.0
부채총계	79.1	75.6	70.7	71.9	88.5
지배주주지분	28.0	35.6	51.1	81.4	121.8
자본금	1.0	1.0	1.0	1.2	10.0
자본잉여금	0.0	0.0	0.0	10.0	1.2
이익잉여금	27.1	35.6	51.2	71.5	111.8
기타	(0.1)	(1.0)	(1.1)	(1.4)	(1.2)
비지배주주지분	0.0	0.0	0.0	0.0	0.8
자본총계	28.0	35.6	51.1	81.4	122.6

자료: WiseFn

재무비율 및 주당지표

	2013.12	2014.12	2015.12	2016.12	2017.12
증감률 (%)					
매출액	21.4	17.2	15.6	24.5	37.6
영업이익	282.0	27.9	54.4	45.8	51.7
순이익	348.7	(12.5)	86.5	5.8	80.1
주당지표					
EPS (지배주주)	1,349	1,181	2,202	2,381	3,372
EPS (연결기준)	1,349	1,181	2,202	2,381	3,372
BPS	3,501	4,450	6,391	8,748	12,228
DPS (보통주)	250	125	250	-	300
Valuations (배)					
P/E	0.0	0.0	0.0	0.0	0.0
P/B	0.0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0.0
비율					
ROE (%)	45.6	29.7	40.6	28.1	0.0
ROA (%)	11.7	8.7	15.1	13.6	0.0
배당성향 (%)	18.5	10.6	11.4	0.0	8.9
배당수익률 (보통주,%)	0.0	0.0	0.0	0.0	0.0
순부채비율 (%)	141.2	116.0	56.5	30.4	29.3

자료: WiseFn



리서치센터
02 2020 7115

리서치센터 Top 10 picks

종목	주가(원)	목표주가(원)	시가총액(조원)	투자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	200,000	300,000	18.5	- IMO 2020 규제에 따른 정제마진 업황 개선 모멘텀 - EV배터리 중장기 성장 로드맵과 2020년 흑자 전환 기대
KT&G (033780)	101,000	130,000	13.9	- 커버리지 확장에 따른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 - 고속 설비 도입으로 생산 능력이 향상되어 향후 수익성 개선 기대
삼성화재 (000810)	286,000	310,000	13.5	-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방어주로서 매력 부각 - 실손요율 인상 승인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
하나금융지주 (086790)	38,250	55,000	11.5	- 19년 P/B 0.45배로 19년 예상 ROE 9.3% 대비 여전히 할인 폭이 과도 - 금리 상승 시, NIM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 속도가 타사 대비 높음
LG유플러스 (032640)	15,200	20,000	6.6	- 타사 대비 높은 이익 성장대비 역사적으로 할인된 Valuation 매력 - M&A와 글로벌 OTT 제휴를 통한 홈미디어 부문 성장 기대
한국가스공사 (036460)	52,100	68,000	4.8	- 연료비 연동제 및 투자 확대 등 우호적인 국내 사업 환경 - 유가 상승에 기인하여 해외 투자사업들의 이익 증가 기대
CJ대한통운 (000120)	149,000	180,000	3.4	- 2018년 8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가동 - 4Q18 이후 택배 평균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할 전망
필어비스 (263750)	184,900	330,000	2.4	- 2019년 상반기 북미, 유럽, 일본 지역으로 검은사막 모바일 진출 - 2019년 하반기 신작 프로젝트K 출시 모멘텀
유한양행 (000100)	235,000	230,000	2.9	- 3세대 EGFR 저해제, 국내 임상 2상 완료 후 2020년부터 실적 기여 전망 - YH14618 기술 수출로 트랙 레코드 확보 및 R&D 선순환 기대
우리산업 (215360)	29,550	40,000	0.3	- 현대/기아차 전기차 모델 생산본격화로 PTC히터 매출 증가 - 자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따른 매출 성장 전망

참고: 목표주가는 당사 리서치센터 기준,

※ 삼성 Top 10 picks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주간 단위로 제시하는 투자유망종목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고객님의 종목에 투자하실 경우 한 종목 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투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세 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하여 고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권고 드립니다.



투자정보팀

seungjin.shin@samsung.com
02 2020 7017
jm56.kim@samsung.com
02 2020 7030

Model Q

퀀트로 보는 투자 매력도

종목코드	종목명	종합 점수 (100 점)	영업이익(십억원)			P/E (배)	P/B (배)	수익률(%)	
			2017	2018(E)	YOY(%)			1개월	3개월
003670	포스코케미칼	92.0	104	110	6.2	32.1	6.0	16.2	64.1
086520	에코프로	90.6	22	56	156.1	26.3	4.7	(5.8)	5.5
056190	에스에프에이	89.4	236	219	(7.4)	8.9	1.7	13.0	8.4
105560	KB 금융	89.0	4,015	4,729	17.8	5.7	0.5	(10.2)	(7.9)
009150	삼성전기	88.9	306	1,126	267.6	12.4	1.8	(15.2)	(19.4)
051910	LG 화학	88.0	2,928	2,418	(17.4)	15.7	1.5	6.3	(8.8)
012750	에스원	87.9	203	202	(0.1)	24.6	2.5	3.9	8.6
035900	JYP Ent.	87.7	19	30	52.0	45.8	8.9	(14.6)	33.6
000660	SK 하이닉스	87.2	13,721	22,431	63.5	3.3	1.1	(0.7)	(4.6)
035760	CJ ENM	87.2	224	292	30.0	14.4	2.2	(12.3)	(14.9)
008770	호텔신라	87.0	73	236	223.5	17.5	3.1	(16.8)	(25.3)
000270	기아차	86.4	662	1,209	82.6	7.6	0.4	(14.9)	(12.4)
128940	한미약품	86.2	82	80	(3.1)	117.8	6.3	(0.9)	1.5
192820	코스맥스	85.7	35	57	63.5	30.0	4.4	(17.0)	(21.0)
058470	리노공업	85.7	49	54	10.1	16.7	3.0	(20.7)	(13.2)
066570	LG 전자	85.3	2,469	3,116	26.2	7.9	0.9	9.0	(8.0)
005930	삼성전자	84.7	53,645	64,376	20.0	6.1	1.3	1.1	(1.2)
178920	SKC 코오롱 PI	83.4	53	66	24.5	27.1	4.5	(10.7)	(22.0)
004170	신세계	83.4	346	412	19.3	9.7	0.7	(14.7)	(16.0)
001040	CJ	83.3	1,326	1,386	4.6	6.2	0.8	2.6	(15.1)

참고: 11월 13일 기준, 자료: Dataguide

※ Model Q는 종목별 시장 컨센서스 변화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모델입니다. Fnguide Universe 중 추정기관이 2개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기업이익 모멘텀, 수급 변화, 주가 변화에 따른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목표주가 대비 현 주가 수준 등을 계량화하였습니다. Model Q는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종목 Pool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점수에 따른 종목 선호도 제시와 추천종목의 의미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China Center

china.center@samsung.com
02 2020 7032

● 글로벌 유니버스 | 1. 범중화 시장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건설은행 (601939, 상해)	금융	-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 주택담보대출 강자로 안정적 성장 -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는 고배당 기업	235.1
시노펙 (600028, 상해)	에너지	- 중국 최대 정유화학 국영기업으로 원유, 가공유, NCC 사업을 영위 - 정제사업에서 동종기업 대비 원가경쟁력을 보유	121.0
해천미업 (603288, 상해)	음식료	- 중국 최대 조미료 생산업체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이미지 보유 - 고급제품 비중확대와 안정적 유통망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ROE 30%) 유지	28.7
샤오미 (1810, 홍콩)	IT 하드웨어	-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위, 인도 1위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기업 - 스마트폰, 생활가전, IoT 사업에 주력하며 IT·인터넷 기업으로 전환 모색	43.5
안휘해라시멘트 (600585, 상해)	건자재	- 중국 1위, 글로벌 2위 시멘트 기업으로 중국 전역을 커버 - 동종기업 대비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며 고마진 상품 비중 61%	29.9
중국국제여행사 (601888, 상해)	여행	- 중국 유일의 전국 면세 라이선스를 보유한 국영 기업 - 쉐리프 합병을 통해 중국 면세산업 시장점유율 79% 독식	17.5
보산철강 (600019, 상해)	철강	- 무한철강과의 인수합병으로 조강 생산량 기준 글로벌 2위 - 견조한 수요와 환경규제에 따른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익모멘텀 지속	27.2
귀주모태주 (600519, 상해)	음식료	- 중국 1위 백주 생산기업. 소비층 및 유통망을 확장하여 판매량 증가 기대 - 프리미엄 백주의 입지를 강화하며 경쟁사 대비 높은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	116.9
화능국제전력 (600011, 상해)	유틸리티	- 중국 대표 화력발전 기업으로 계절성 전력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 정부의 석탄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원가상승 부담 해소	15.7
항서제약 (600276, 상해)	제약	- 중국 신약개발 선두업체로 항암제 1위, 마취제 2위 제약회사 - 아파티닙 외 PD-1치료제와 피로티닙 등 메가 신약 출시 기대	39.3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당사는 고객의 투자위험관리를 위하여 최소 세 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상해국제공항 (600009, 상해)	운송	- 상해 국자위 산하의 국유기업으로서 상해 푸둥공항 운영 - 올해 상반기 면세점 재입찰로 임대수수료 수입 증가 기대	15.7
화역자동차시스템 (600741, 상해)	자동차	-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으로 55% 매출이 상해자동차에서 발생 - 조명 등 부품 기업 M&A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으로 신사업 확장	9.3
중국평안보험 (601318, 상해)	금융	- 중국 최대 민영 종합금융그룹으로, 생명보험 상품 판매에 특화 - 인보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업계 최고의 보험료 수익 달성 중	198.5
공상은행 (601398, 상해)	금융	- 중국 초대형 국유은행으로 예금 비중이 81%로 동종은행 대비 높음 - 리테일 금융에도 강점이 있어 자산 성장에 기반한 순이자마진 유지 용이	304.2
상해자동차 (600104, 상해)	자동차	- 중국 자동차시장 점유율 26%로 합자브랜드 폭스바겐 및 GM을 보유 - 자체 브랜드 SUV 판매 호조 및 전기차 신차 출시에 따른 재평가 기대	52.4
장강전력 (600900, 상해)	유틸리티	- 중국 최대 수력발전 기업으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고배당주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 및 전력개혁 가속화에 따른 수혜	52.4
중국건축 (601668, 상해)	건설	- 중국 최대 건축 부동산 종합그룹으로, 국유기업 개혁 수혜 전망 -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인프라투자 확대 수혜주	36.9
하이드그룹 (002311, 심천)	농업	- 어류 사료 제조 기업으로 출발. 가금류, 돼지사료 제조 및 판매 사업 - 1,000여 종의 사료 배합기술을 보유. 원가경쟁력 확보	5.7
알리바바 (BABA, 뉴욕)	IT	- 타오바오와 알리페이 개발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주도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및 스마트 물류가 차세대 성장 동력	416.3
텐센트 (00700, 홍콩)	IT	- 10억명 사용자에게 기반한,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절대 강자 - 게임, 디지털컨텐츠, 지급결제 등 성장산업으로 집중되는 Biz 모델 구축	378.0



US Desk

youngjin91.lee@samsung.com
02 2020 7377

● 글로벌 유니버스 | 2. 미국 시장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애플 (AAPL US)	IT/하드웨어	- ASP 상승에 기반한 마진 개선 및 서비스 사업부문 성장 지속 전망 - 주주친화정책 확대 속 신사업진출(AR, 자율주행차)관련 기대감 유효	1,044.8
마이크로소프트 (MSFT US)	IT/소프트웨어	- 저성장사업 구조조정 마무리 + 신규사업 성장기반 확보 동시 진행 중 - 클라우드서비스 Azure 90%이상 / Office365 40% 이상 성장 중	930.2
아마존 (AMZN US)	IT/인터넷	-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 1억 프라임 멤버십 기반으로 사업 확장. 광고시장 매출액 증가 중	907.5
알파벳 (GOOGL US)	IT/인터넷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타겟팅 광고 → Digital 광고시장 장악 - 인공지능/Machine Learning 적용한 신사업 (ex. 자율주행차) 진출	823.3
JP모건 체이스 (JPM US)	은행	- 회사채 인수부분 1위/모기지대출 및 소비자금융 2위/카드론 1위 기업 - 공화당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대표적 수혜종목. 금리상승 시 실적호전 기대	414.5
비자 (V US)	IT/결제	- 세계 최대 신용카드회사로 전세계에 걸친 전자 지불 네트워크를 구축 - 현금 없는 사회 전환 대표 수혜주로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 확대 중	346.8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UNH US)	헬스케어	-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이자 1위 헬스케어 정보 기업 Optum 보유 - 의료보험 가입자수 증가 속 글로벌 확장 (남미시장) 지속 중	297.1
코카콜라 (KO US)	음식료	- 경쟁기업과의 점유율 격차를 늘려가는 탄산음료 시장 절대 강자 - 세계 2위 커피체인 코스타 인수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공	240.7
머크 (MRK US)	제약/바이오	- 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과 적응증 확대로 이익 모멘텀 기대 - 프레지어 CEO 경영권 지속 하에 고마진 제품군 확대로 마진상승 추구 중	220.2
월트 디즈니 (DIS US)	미디어/엔터	- 테마파크 성장 및 스튜디오 부문 흥행 성공. DTC 서비스 기대감 상승 - 보유 IP를 활용한 수익창출모델이 강점. Fox 자산 인수로 콘텐츠 강화	196.8

(다음 페이지에 계속)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다우듀폰 (DWDP US)	화학	- 종합화학업체로 글로벌경기 Cycle호전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전망 - DuPont과의 합병 시너지로 인한 비용감소 및 안정적 성장 기대.	150.1
나이키 (NKE US)	소비재	- 압도적인 브랜드파워를 보유한 세계 1위 스포츠용품 업체 - 업계 라이벌 아디다스의 추격을 새로운 성장동력 제시로 극복 중	135.7
엔비디아 (NVDA US)	IT/하드웨어	- 글로벌 외장형 GPU 점유율 77%로 독보적인 1위 업체 - AI, VR, 자율주행, 빅데이터의 핵심인 GPU 시장의 고성장 기대	130.7
코스트코 홀세일 (COST US)	유통	-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통기업 - e커머스 부문의 높은 성장세 속, 매장 당 고객 성장도 반등세	116.5
세일즈포스 닷컴 (CRM US)	소프트웨어	- CRM(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세계 1위 (MS 20%) - 지속적 M&A로 CRM 소프트웨어 전후의 서비스 라인업 구축	112.0
페덱스 (FDX US)	운송	- 미국 택배 시장을 과점(MS 30%)하고 있는 세계적인 배송업체 - 옴니채널 확산으로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의 택배 수요 증가 수혜	65.6
셀진 (CELG US)	바이오	- 대형 바이오기업 중 유일하게 10% 후반의 외형 성장 예상 - 오자니모드 승인 연기에 불구 하반기 임상실험 결과 다수 발표 예정	56.3
조에티스 (ZTS US)	헬스케어	- 동물 의약품 부문 글로벌 1위 기업. M&A를 통한 진단사업 경쟁력 확보 - 동물 헬스케어 산업은 향후 4~5년간 연 6%의 꾸준한 성장 전망	51.4
월드페이 (WP US)	IT/결제	- 밴티브(Vantiv)와 월드페이(Worldpay)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가시화 - 많은 진출 국가(146개국) 기반으로 글로벌 e커머스 결제 시장 성장 수혜	30.9
아이큐비아 (IQV US)	헬스케어	- 전세계 1위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업체 - 복잡한 신약개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CRO 시장 지속 성장 수혜 예상	27.8



해외주식팀

Jungyeon1980.kim@samsung.com
02 2020 6802

○ 글로벌 유니버스 | 3. 일본 시장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도요타자동차 (7203 JP)	자동차	-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기업(시장 점유율 11%) -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위(36.1%), 교통 서비스 플랫폼 시장 선점	203.7
소프트뱅크 (9984 JP)	통신	- 일본 내 견고한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인 투자 - 세계 최대규모 테크 펀드인 비전펀드의 무한한 가능성	97.7
소니 (6758 JP)	전자	- 일본 최대의 가전 기업으로 가전, 반도체,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사업 보유 - 이미지 반도체와 게임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대 매출 경신 기대	74.3
키엔스 (6861 JP)	전자부품	- 산업용 공장자동화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34%) -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른 글로벌 공장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72.4
리크루트홀딩스 (6098 JP)	산업재	- 일본 최대 인력채용 기업으로 채용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 해외 구직 검색 웹사이트를 인수하며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	49.8
닌텐도 (7974 JP)	게임	- 휴대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충족시킨 닌텐도 스위치의 성공 - 게임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 진입	50.0
세븐&아이홀딩스 (3382 JP)	유통	- 일본 최대의 리테일 기업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금융사업 운영 -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 둔화와 슈퍼마켓 사업 재편으로 마진 개선 기대	43.5
니혼덴산 (6594 JP)	전기기기	- 산업 프레임 전환에 따른 차량/산업/가전용 모터 수요 증가 수혜 기대 - 효율적인 M&A 전략으로 과점화된 모터 시장 선도	42.3
신에쓰화학 (4063 JP)	소재	- 세계 1위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 - 300nm 웨이퍼 가격 상승과 미국 PVC 사업의 마진 개선 기대	41.1
가오 (4452 JP)	생활용품	- 일본 최대 생활용품 생산/판매 기업(매출비중 일본 70%, 해외 30%) - 중국향 생활용품 매출 증가/일본 화장품 사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장	36.8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무라타제작소 (6981 JP)	전자부품	- 일본 최대의 IT부품 기업으로 MLCC, 통신모듈, 필터를 주력으로 생산 - MLCC 시장 점유율 1위 (40%), SAW Filter 시장 점유율 1위 (45%)	38.0
시세이도 (4911 JP)	화장품	- 일본 대표 화장품 기업으로 시세이도 외 다수의 자회사 브랜드 보유 - 일본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고른 매출 분포의 강점 보유	28.2
SMC (6273 JP)	산업재	- 세계 1위(34%) 공압식 공장 자동화 밸브/실린더 생산 기업 - 중국 공장자동화 산업 성장 기대: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낮은 공장자동화 비율	24.6
TDK (6762 JP)	전자부품	- IT부품과 리튬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부품 기업 - 차량용 MLCC 시장 점유율 1위, 리튬 배터리 사업 성장세 기대	11.5
메루카리 (4385 JP)	IT	- 일본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C2C 앱 제공 기업 - 시장 점유율 1위(76%)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시장 성장성의 수혜 기대	4.4



해외주식팀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 글로벌 유니버스 I 4. 유럽 시장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아스트라제네카 (AZN, 영국)	제약	-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암, 심혈관, 호흡기 관련 의약품에 강점 - 신약 제품 포트폴리오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업종 내 프리미엄 거래 가능	115.6
알리안츠 (ALV, 독일)	보험	- 글로벌 대표 보험사. 매출 비중은 손해보험 45%, 생명보험 35%, 자산운용 20% - 업종 내 가장 뛰어난 건전성 비율 및 비용 감소를 통한 이익성 개선 기대	103.0
로얄 더치 쉘* (RDSA, 영국)	에너지	- 유럽 1위·글로벌 5위 정유사로 업/다운스트림 전 부분에서 경쟁력 보유 - 선제적 다운스트림 capex 투자 및 자사주 매입·공격적 배당 정책 전망	296.3
네슬레 (NESN, 스위스)	식품	- 세계 최대 식품회사로 2천 개 이상 브랜드 보유 - 전 시장 고른 매출 성장세 및 이익률 개선에 주목	292.7
안호이저 부쉬 (ABI, 벨기에)	음료	- 글로벌 1위 맥주 양조업자로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안정적 이익 창출 -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 기반의 3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	167.3
LVMH (MC, 프랑스)	의류	- 루이비통·지방시 등 70개 이상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제조업체 - 중국 등 신흥국 중산층 소비 증가는 중장기 성장 동력	169.6
토탈 (FP, 프랑스)	에너지	- 세계 5대 정유 복합 기업으로 글로벌 업스트림 포트폴리오 보유 - 2014~17년 구조조정 이후 유가 회복 국면에서 우호적 이익률 개선	171.8
유니레버* (UNA, 네덜란드)	소비재	- 4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종합 소비재 업체 - 기업인수를 통한 상품 포트폴리오 채널 혁신과 빠른 현지화가 강점	177.2
SAP (SAP, 독일)	소프트웨어	- 글로벌 1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업체로 미래 기업형 클라우드 사업 주목 - 신제품 사이클 초기 국면으로 타라인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141.4
로레알 (OR, 프랑스)	소비재	- 뷰티업계의 글로벌 리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썬케어 부문 글로벌 1위 - 중국 밀레니얼(20~40세)세대의 수요 증가는 구조적 성장 동력	146.6

** 로얄 더치 쉘과 유니레버는 런던과 암스테르담 동시 상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사노피 (SAN, 프랑스)	제약	- 특수 질환에서 백신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제약사 - 최근 출시한 아토피, 관절염 치료제 판매 호조 전망	127.1
에어버스 (AIR, 프랑스)	항공	- 전세계 최대 항공 업체(상업용 항공기 1위) 및 유럽 1위 방위업체 - 상용기 시장 전망 호조에 힘입어 신규 주문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93.4
BASF (BAS, 독일)	화학	- 글로벌 선도 종합화학 회사로 전세계 M/S 1위의 선도적 지위 영위 - 업계 내 안정적 제품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업스트림 사이클 회복세에 주목	79.3
케링 (KER, 프랑스)	의류	- 구찌,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명품 사업자 - 밀레니얼 세대 중심의 고객 저변 확대로 핵심 브랜드의 안정적 성장세	68.5
다임러 (DAI, 독일)	자동차	- 메르세데스 벤츠 등 고급 승용차 및 글로벌 최대 상업용 차 제조업체 - 최대 시장 중국의 고성장 및 올해부터 이어지는 신규 모델 출시에 주목	62.6
Axa (CS, 프랑스)	보험	- 글로벌 대표 보험사. 매출 비중은 생명보험 60.1%, 손해보험 35.4% - 자회사 AEH의 성공적 IPO로 재무적 리스크 해소 및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68.2
아디다스 (ADS, 독일)	의류	- 아디다스·리복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2위 스포츠 브랜드 - 북미 지역 탑라인 고성장세 및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중	51.6
ABB (ABBN, 스위스)	산업재	- 전기제품, 로봇, 산업자동화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 - 부진 사업부인 파워그리드 스피노프에 대한 시장 기대감 점증	48.4
Accor (AC, 프랑스)	호텔	- 24개 브랜드로 100여 국에 4,300개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호텔 체인 - 신흥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여행 산업 성장에 따른 구조적 성장성 부각	14.6
티센크루프 (TKA, 독일)	철강	- 글로벌 2위 철강사이자 산업재 복합기업(소재, 엘리베이터, 부품, 철강 등) - 인도 Tata steel과의 JV 시너지 및 하반기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13.4



해외주식팀

jyng.jung@samsung.com
02 2020 7306

○ 글로벌 유니버스 | 5. 베트남 시장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비나밀크 (VNM, 베트남)	음식료	- 베트남 1위 유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 - 주요 제품은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시장점유율 49%	9.9
마산그룹 (MSN, 베트남)	음식료	- 식료품(매출비중 30%)·동물사료(53%)·광산(14%)·은행 자회사를 둔 지주사 -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강점 보유, 사업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 점증	4.5
호아팻그룹 (HPG, 베트남)	철강	- 베트남 최대 철강 생산업자(자체 고로 보유) - 건설용 철강 M/S 25%, 강관 M/S 27%	3.8
비엠티항공 (VIC, 베트남)	항공	- 베트남 최대 저가항공사(LCC) 업체로 국내 여객수송 M/S 41% 차지 - 내수시장 확대 및 동북아 인바운드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기대	3.4
바오비엠티홀딩스 (BVH, 베트남)	금융	- 베트남 1위 보험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복합 비즈니스 체계 구축 강점 -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금융 투자 수익 상승 전망	3.3
킨박시티개발지주 (KBC, 베트남)	부동산	- 베트남 산업단지 임대 1위 - 산업단지, 사업부지, 물류창고 임대/판매가 주 수입원	0.3
PV운송 (PVT, 베트남)	제조	- 베트남 최대 국유기업 페트로베트남 지분 51% 보유로 안정적인 매출 발생 - 주요 서비스는 원유 운송, 선박 수리, 해운 관련 장비 및 자재 공급	0.2



해외주식팀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글로벌 유니버스 | 6. ETF

종목명 (코드)	섹터	투자포인트	시가총액 (조원)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XLY)	민감 소비재	- 미국의 경기 민감 소비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 아마존 등 미국의 소비재산업을 혁신시키는 기업 다수 포함.	15.2
HealthCare Select Sector SPDR Fund (XLV)	헬스케어	- 소비재와 건강보험 기업 포함으로 변동성이 낮은 방어적 성격 보유 - 제약기업 비중 40% 수준. 건강용품 및 생명공학 등의 산업 포함	21.2
iShares Moderate Allocation ETF (AOM)	자산배분	- 세계적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시기 - 보유자산이 ETF로 구성된 재간접 형태로 90%이상 선진국 자산에 투자	1.0
MG Prime Mobile Payments ETF(IPAY)	결제	- 글로벌 결제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전세계 결제액 성장세의 지속 전망. - 현금 없는 사회 전환 속 대표 수혜주 다수 포함. 혁신에 기반한 성장 중	0.5
VanEck Vectors Semiconductor (SMH)	반도체	- 긍정적인 18년 매출 및 순이익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S&P500 대비 저평가 - Fabless 및 반도체 장비업종 중심. 국내 반도체 업종 대비 효율적 투자대안	1.0
Nomura Nikkei 225 (1321, 일본)	일본	- 일본 완전 고용 시장 근접으로 인한 임금 및 CPI 상승 기대 - 연준 대비 BOJ의 상대적 금융 완화 정책 지속 전망	58.8
FirstTrust Dow Jones Internet (FDN)	미국 인터넷	-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과점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 42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이며, FANG 비중이 34%에 달함	8.8
iShares Asia 50 (AIA)	아시아 대형주	- 타 자산·타 지역 대비 상대적 저밸류 매력 부각 - 지수 편입 비중 높은 IT 섹터의 실적 모멘텀 가시화	1.0
iShares Edge MSCI USA Min Vol (USMV)	저 변동성	-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때 안정적 성과 추구 - 통계적으로 주가 상승 시 기준 지수에 대한 민감도 상승	20.1
iShares Russell 1000 Value ETF (IWD)	가치주	- 대형 가치주 비중이 높아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는 대안 - 편입종목의 수가 705개에 달해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효과 기대	42.6

참고: 상기 ETF는 미국 및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중

투자정보팀

hyunjung1016.kim@samsung.com
02 2020 7540

수급 빅매치

전일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엔씨소프트	107	1	삼성전자	831
삼성물산	99	2	SK하이닉스	550
롯데쇼핑	81	3	셀트리온	400
삼성바이오로직스	64	4	삼성전기	322
삼성SDI	58	5	KB금융	175
현대제철	55	6	LG이노텍	137
호텔신라	37	7	아모레퍼시픽	121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36	8	SK텔레콤	95
미래에셋대우	30	9	현대모비스	92
메리츠종금증권	25	10	LG유플러스	87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셀트리온제약	61	1	고영	97
셀트리온헬스케어	41	2	에이치엘비	93
풀어비스	30	3	신라젠	55
에스엠	22	4	CJ ENM	52
리노공업	17	5	비에이치	48
포스코켄텍	17	6	SKC코오롱PI	47
솔브레인	15	7	AP시스템	44
메디톡스	12	8	JYP Ent.	33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2	9	카페24	28
포스코엠텍	11	10	바이로메드	21

전일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셀트리온	694	1	삼성바이오로직스	201
삼성전자	620	2	삼성SDI	185
고려아연	197	3	삼성전기	153
SK하이닉스	174	4	엔씨소프트	141
SK텔레콤	124	5	미래에셋대우	112
KB금융	109	6	POSCO	69
현대모비스	98	7	LG생활건강	51
한온시스템	97	8	한화케미칼	44
LG유플러스	91	9	현대중공업지주	41
현대중공업	87	10	현대건설	38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오스템임플란트	28	1	대한광통신	122
카페24	24	2	에코프로	63
우리산업	23	3	에스엠	57
에스에프에이	22	4	포스코켄텍	55
셀트리온제약	19	5	SK머티리얼즈	36
레고켄바이오	17	6	제넥신	34
와이솔	17	7	셀트리온헬스케어	27
메가스터디교육	16	8	SKC코오롱PI	19
컴투스	15	9	리노공업	16
비츠로셀	14	10	솔브레인	15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전일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순매도 주요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물산	120	1	삼성전기	475
현대제철	79	2	LG이노텍	147
유한양행	42	3	LG생활건강	97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셀트리온제약	80	1	대한광통신	128
오스템임플란트	33	2	에이치엘비	102
풀어비스	30	3	신라젠	68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최근 5일간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SK하이닉스	2,101	2.6	1	셀트리온	1,222	(16.8)
삼성전자	1,227	1.7	2	삼성전기	466	(10.8)
삼성물산	461	(3.2)	3	KB금융	461	(3.1)
힐라코리아	388	12.4	4	아모레퍼시픽	435	(12.1)
삼성SDI	347	(7.9)	5	LG유플러스	413	(1.3)
롯데쇼핑	272	6.0	6	LG이노텍	335	(12.3)
S-Oil	200	(5.8)	7	호텔신라	302	(4.2)
우리은행	193	1.3	8	SK텔레콤	271	1.5
삼성생명	173	1.0	9	현대모비스	224	(4.6)
메리츠증권	165	6.9	10	현대차	218	(4.7)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포스코케미칼	198	7.6	1	에이치엘비	502	(10.9)
풀어비스	139	(8.3)	2	셀트리온헬스케어	413	(16.2)
아프리카TV	135	2.7	3	신라젠	322	(9.5)
리노공업	98	(9.2)	4	SKC코오롱PI	152	2.3
대아티아이	80	(5.2)	5	비에이치	136	4.1
셀트리온제약	77	(12.1)	6	바이로메드	119	(8.7)
오스템임플란트	72	11.6	7	고영	104	(14.7)
메디톡스	70	4.4	8	CJ ENM	101	(4.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1	8.1	9	JYP Ent.	76	2.0
네이처셀	59	(5.4)	10	웹젠	62	4.2



최근 5일간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삼성전자	1053	1.7	1	삼성전기	1,580	(10.8)
LG전자	649	3.2	2	삼성바이오로직스	1,283	(21.8)
셀트리온	548	(16.8)	3	삼성SDI	1,137	(7.9)
현대건설	360	1.9	4	삼성물산	675	(3.2)
SK텔레콤	357	1.5	5	LG화학	451	(4.1)
고려아연	345	7.6	6	POSCO	449	(5.3)
SK	336	5.0	7	S-Oil	443	(5.8)
현대중공업	300	4.3	8	엔씨소프트	378	(0.4)
LG유플러스	298	(1.3)	9	힐라코리아	353	12.4
카카오	273	5.1	10	LG생활건강	296	(8.2)

코스닥 시장

순매수	금액 (억원)	수익률 (%)	순위	순매도	금액 (억원)	수익률 (%)
서울반도체	118	6.3	1	셀트리온헬스케어	440	(16.2)
게임빌	67	6.0	2	펄어비스	253	(8.3)
메디톡스	60	4.4	3	파라다이스	234	(9.4)
JYP Ent.	59	2.0	4	에이치엘비	189	(10.9)
CJ ENM	48	(4.6)	5	리노공업	180	(9.2)
오스템임플란트	40	11.6	6	케어젠	164	(0.4)
에스에프에이	38	2.7	7	제넥신	163	(8.5)
모두투어	36	1.8	8	신라젠	143	(9.5)
메가스터디교육	34	18.0	9	나스미디어	130	(12.3)
인탑스	34	24.3	10	바이로메드	127	(8.7)

참고: 상기 자료는 17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Fnguide

기관/외국인 순매수 전환 종목

코스피 시장	외국인	동성제약, 사조산업	코스닥 시장	외국인	텔콘RF제약, 안트로젠
	기관	삼성전자, NAVER		기관	에스에프에이, 하림지주

참고: 순매수 전환은 2일 연속 매도에서 2일 연속 매수 전환하고,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큰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료: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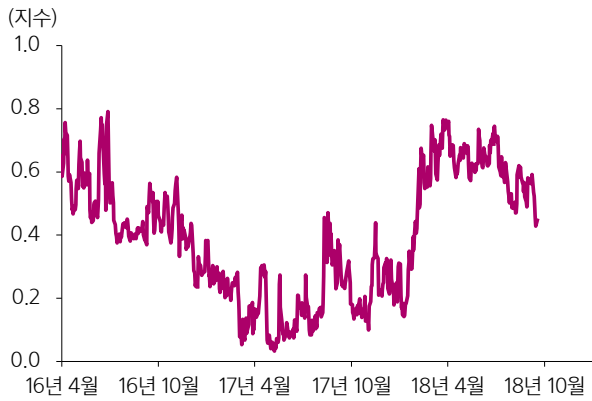
투자정보팀

Hyeokjin.lee@samsung.com
02 2020 7625

Marke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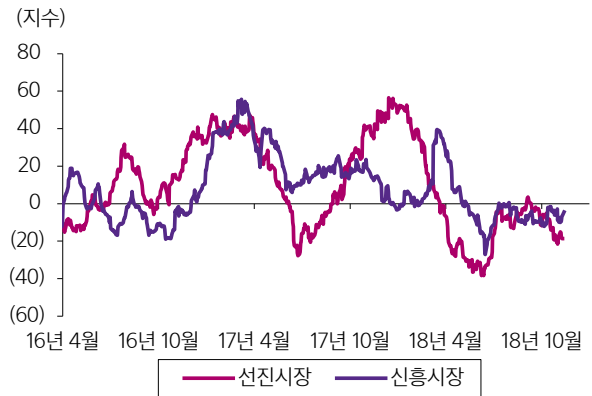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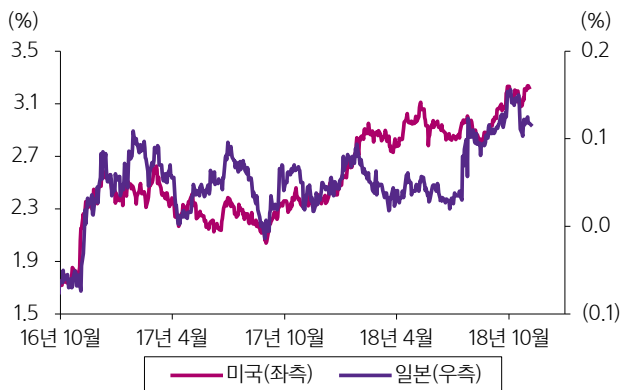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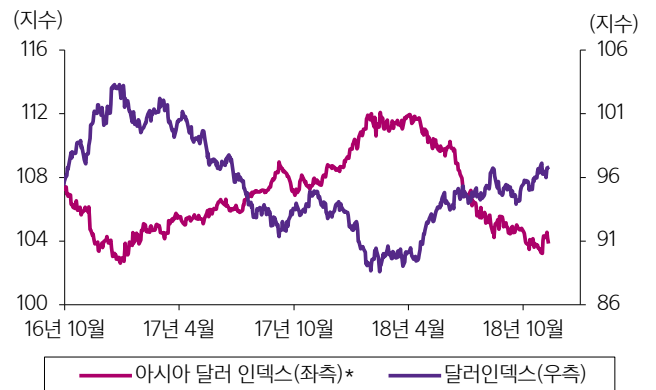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고: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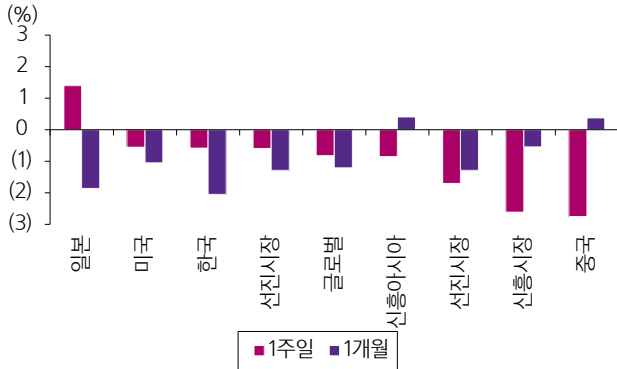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참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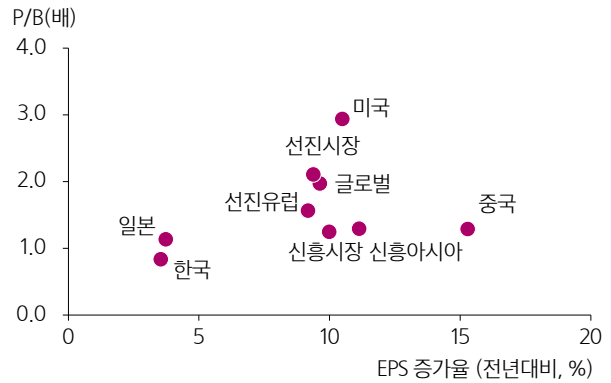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참고: 11월 3일 ~ 11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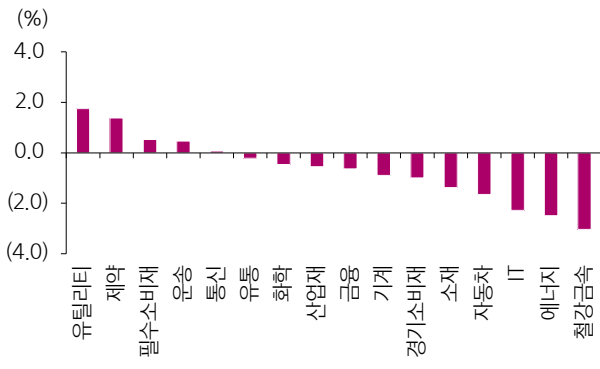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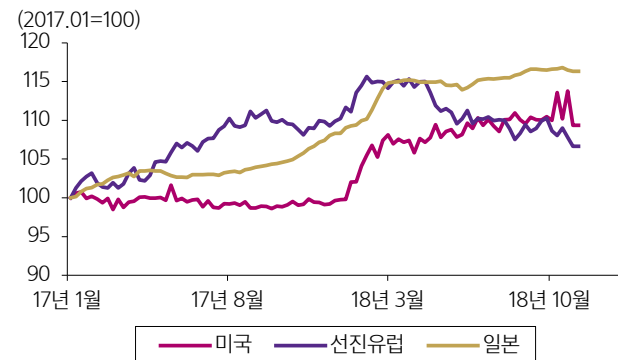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11월 3일 ~ 11월 12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8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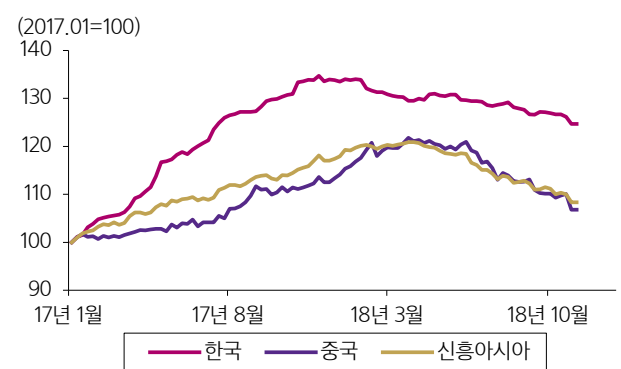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11월 3일 ~ 11월 12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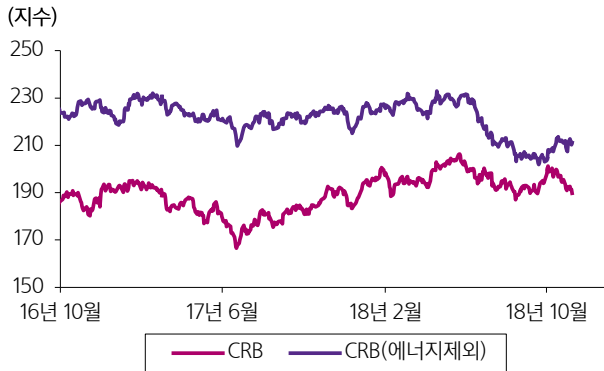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8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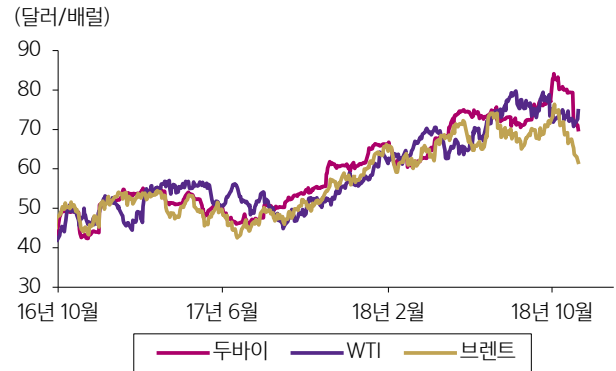
TR/Jefferies CRB Index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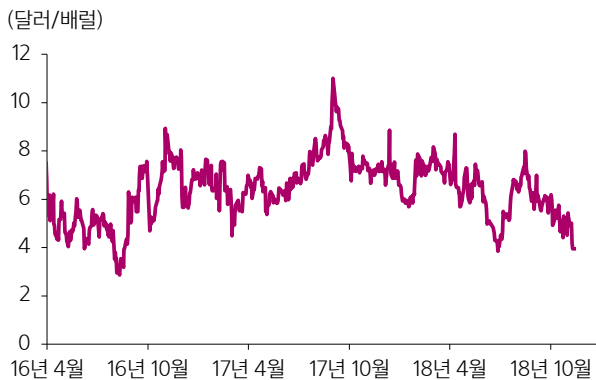
참고: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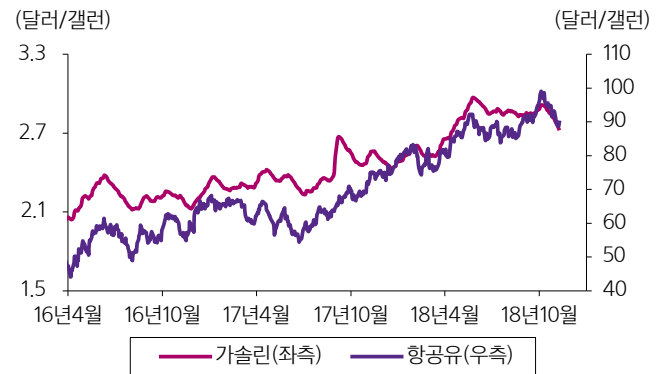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싱가포르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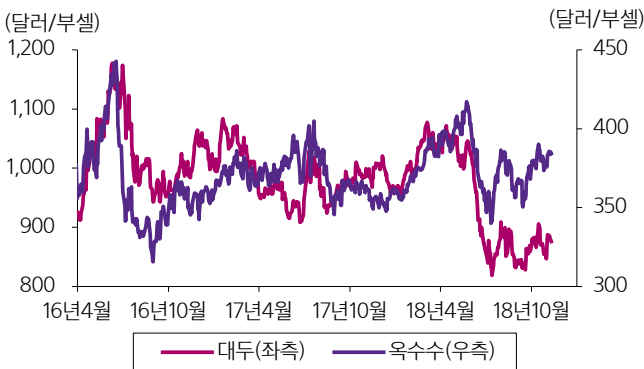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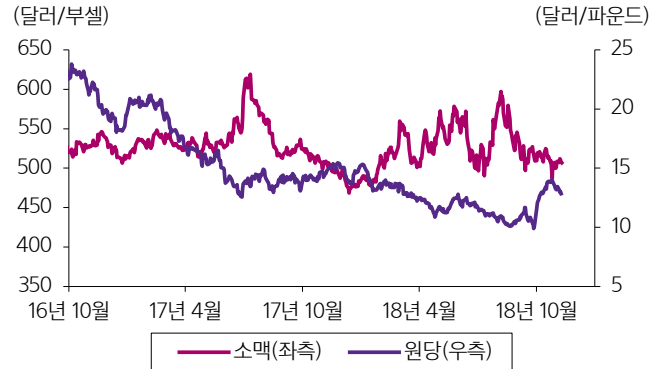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두 & 옥수수



자료: Bloomberg

소맥 & 원당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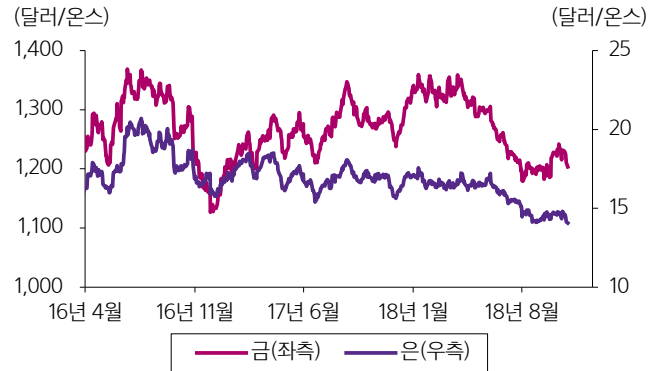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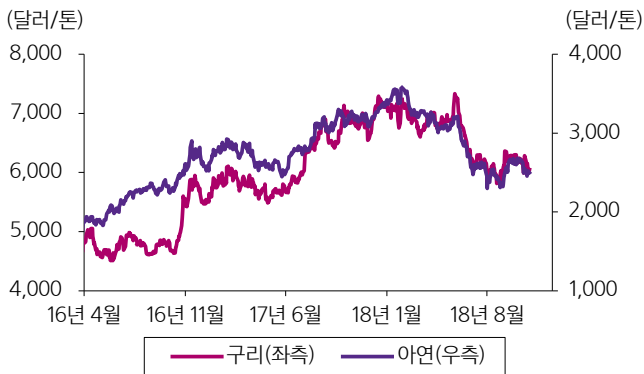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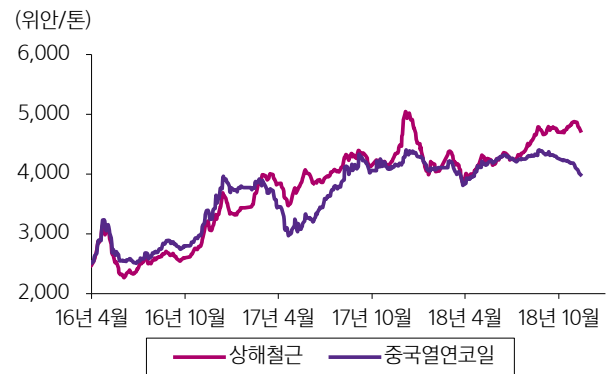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비철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철강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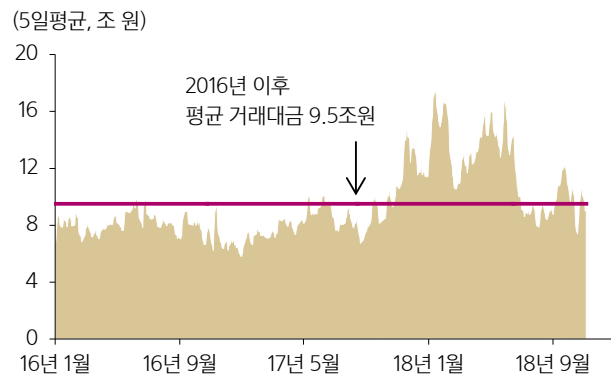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Dataguide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Dataguide



증시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12	13	14	15	16
<p>[일본] 10월 생산자물가지수(전년비) (10월 2.9%/E 2.8%/P 3.0%)</p>		<p>[미국] MBA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2주 /E /P -4.0%) 10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비) (10월 /E 0.3%/P 0.1%)</p> <p>[유럽] 3Q GDP SA(전기비) (3Q /E 0.2%/P 0.2%)</p> <p>[중국] 10월 광공업생산(전년비) (10월 /E 5.8%/P 5.8%)</p> <p>[일본] 3Q GDP(잠정, 전기비) (3Q /E -0.3%/P 0.7%) 9월 광공업생산(최종, 전월비) (9월 /E /P -1.1%)</p> <p>[한국] 10월 실업률 SA (10월 /E 4.0%/P 4.0%)</p>	<p>[미국]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전건) (11월 2주 /E /P 214) 11월 제조업지수 (11월 /E 20.0/P 21.1) 10월 소매판매(추정, 전월비) (10월 /E 0.5%/P 0.1%)</p>	<p>[미국] 10월 광공업생산(전월비) (10월 /E 0.2%/P 0.3%)</p> <p>[유럽] 10월 소비자물가지수(전월비) (10월 /E 0.2%/P 0.5%)</p>
19	20	21	22	23
	<p>美 10월 주택착공건수</p>	<p>美 MBA주택융자신청자수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 10월 내구재주문 10월 선행지수 10월 기준주택매매 미시간대 소비자신뢰</p> <p>日 9월 전체산업활동지수</p>	<p>유 11월 소비자기대지수</p> <p>日 10월 소비자물가지수</p> <p>*휴장: 미국</p>	<p>美 11월 마켓 제조업 PMI</p> <p>유 11월 마켓 제조업 PMI</p> <p>日 11월 닛케이 제조업 PMI</p> <p>*휴장: 미국(반장), 일본</p>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E: 예상치, P: 직전발표치
자료: Bloomberg

-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전략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